



# 포장 현장 경험으로 포장산업 매력 느껴

정연훈 / 경북과학대학 포장과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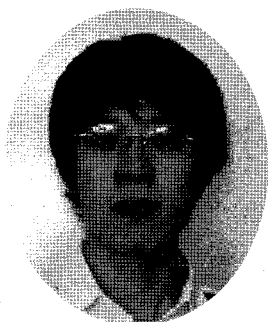
한국포장협회로 실습을 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궁금해하며 인터넷을 찾아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이 처음이라 첫날부터 지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지도를 참고해가며 실습전날 포장협회 사무실을 찾아 나섰다.

다음날 평소 기상시간 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로 출근을 하였다.

전날 출근시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조금 일찍 회사로 출근할 수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곳이 내가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라는 생각에 긴장하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강의실 반 정도의 크기에 6대의 컴퓨터, 8개의 책상이 붙어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전무님과 부장님, 박초혜 기자, 이한열 기자, 우현정 씨 그리고 김은혜 선배 모두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부장님께서서는 협회의 연혁과 협회에서의 활동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전무님께서



는 포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지식과 포장산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들의 마음가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해 주셨다.

실습기간동안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회는 2번 참관하였다.

골판지전시회와 인쇄전시회를 참관하였다.

골판지 전시회는 골판지의 시장규모에 비해 전시회장은 작았으며 참여회사도 30여개 정도 였다. 한편, 인쇄전시회는 이보다는 큰 규모였으며 연포장 수업때 책에서만 보아왔던 여러 인쇄기계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그리고 실습기간동안 부장님과 여러 업체를 방문하였다.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현장 방문을 하였다. 작은 중소기업이라 약간의 편견을 가졌으나 곧 그건 나의 커다란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규모는 작으나 직원들 모두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했으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큰 것 같았다. 또한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전문적이었다. 회사또한 다른 큰 중소기업에 뒤지지 않는 생산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잠시나마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내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부장님은 여러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장안의 기계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고 돌아가는 공정도까지 세심히 설명해 주셨다.

여러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학교 책에서만 보아왔고 공부해 왔던 여러 기계를 보면서 학교에서 배우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기계들의 공정도나 기계내부의 부품등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기자들과 같이 해태제과와 오리온제과 같은 대기업 포장 개발팀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사무실안의 여러 직원들 역시 우리가 들어왔는지도 모를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포장 개발팀이 하는 주업무에 관해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며, 식품포장지에 관해 몰랐던 여러 가지 궁금한점 등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해태제과에서는 또한 우리학교의 선배가 그곳에서 취업해 있어서 인지 조금은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부장님과 박초혜, 이한열 기자와 여러 업체를 방문하는 동안 4주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4주라는 기간동안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포장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은 포장

이란 분야의 작은 부분이며 업체에 나아가 더 많은 분야를 경험하고 배우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실습기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사회라는 집단에 같이 속해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뛰고 느끼면서 잠시나마 나도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일원 중의 하나라는걸 느꼈고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을 보면서 사회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청년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업체에서는 현장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들 한다.

요즘 20대 청년층들은 힘든 현장직 보다는 편한 사무직 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 한다.

자신이 정말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그 일이 정말 내일이라 생각한다면 현장직 인들은 어떻게 사무직인들은 어떤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할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취업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은 않은 것 같다. 4주간의 실습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으며 실습기간동안 나에게 많은 것등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한국포장협회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4주간의 경험은 나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일 것 같고 이마음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맡은 곳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